

전남대치과병원서 일신중 연주회



전남대치과병원(원장 오원만·사진)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치과병원 1층 문화공간 로비홀에서 청소년 음악봉사 연주회를 갖는다.

청소년 학생들의 음악봉사활동 참여 프로그램으로 첫 실시하는 이번 연주회는 일신중학교(교장 류행희) 청소년 관현악반 학생들이 연주한다.

조만형 교수 중앙행정심판위원 위촉



조만형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위촉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하는 행정심판기관이다.

박래호 필암서원 학장 보성향교 강연



박래호 장성 필암서원 선비학당 학장이 15일 오후 1시 보성 보성향교 총회관에서 조청강연회를 갖는다.

박학장은 이날 보성군민을 상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유림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효리 내달 인도 봉사활동 떠나



가수 이효리(32)가 인도로 봉사 활동을 떠난다. 이효리 소속사 관계자는 14일 "이효리가 다음 달 초 1주일간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과 함께 인도에서 봉사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평소 다양한 선행 활동을 펼친 이효리는 월드비전의 봉사제안에 흔쾌히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정, 농구코치와 10월 결혼



2008 베이징 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 금메달리스트인 '셔틀콕의 여왕' 이효정(30·삼성전기)이 '10월의 신부'가 됐다. 이효정은 14일 "단국대 농구부 코치로 활동하는 석승호(32)씨와 10월에 결혼하기로 했다"며 "주변에서 10월이 결혼하기에 좋다고 해서 전국체전이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결혼 날짜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효정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 광주아시안게임 혼합복식에서 각각 이용대(삼성전기), 신백철(한국체대)과 호흡을 맞춰 금메달을 따냈고, 지난해 세계단체선수권대회(우버컵)에서 한국이 첫 우승을 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한국 여자 배드민턴의 간판스타다.

“법정 돌아보며 키운 꿈… 훌륭한 어른 될게요”

신안 장산초, 광주지방법원 초청 도시나들이

"법원은 나쁜 일 한 사람만 오는 곳인가요?" "민사 재판이 뭐예요?" "판사가 되고 싶으면 무엇을 가장 열심히 해야 하나요?"

복포에서 뱃길로 1시간40분. 신안 장산면 장산도 장산초등학교는 전교생 40명이 9명의 교사와 함께 섬과 자

연을 벗삼아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곳이다. 놀이시설은 물론 마땅한 문화시설이 부족해 대부분의 아이가 학교에서 하루를 보낸다. 배편도 하루 왕복 3차례에 불과해 체험학습이나 문화시설을 탐방하기 위해서는 여간 큰 맘을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안 장산초교 학생 40명이 교사들과 함께 14일 광주지방법원 '무등봉사단'(단장 최인규 부장판사)의 초청으로 뜻깊은 도시 나들이를 했다.

학생들은 이날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해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뒤 심상철 광주지법원장, 최인규 부장판사, 법원 공보관인 판문방 판사 등과 함께 법정 곳곳을 둘러봤다.

평소 TV에서만 봤던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학생들은 벌어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법복을 입고 직접 판사석에 앉아 재판을 진행해보기도 하고, 평소 궁금했던 것을 질문하며 법정 체험을 즐겼다. 실제 재판의 방청객으로 참여할 때는 장난꾸러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사뭇 진지하기까지 했다.

정성걸(10·3년)군은 "법복도 입어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다"며 "법원은 무서운 곳이 아니라 서로 다툼

을 해결하는 곳이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황은서(9·2년)양은 "여자 경찰관이 장래희망인데, 앞으로 경찰관이 됐을 때 내가 잡은 나쁜 범인들이 이곳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열심히 공부해서 꼭 경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인술한 안철주(58) 교감은 "성인들도 평생에 한번 법정에 오기 힘들다"며 "오늘 소중한 경험이 아이들의 꿈을 키워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고마워 했다.

학생들은 이후 광주국립박물관을 둘러보고 영화관을 마친 뒤 대한민국 초대법원장인 김병로 선생의 생가가 있는 순창으로 향했다. 지난 2010년 개관한 개인연수원에서 숙박한 뒤 16일 우치동물원을 관람하고 귀가 할 예정이다. /김경인기자 kki@

/사진=김진수기자 jeans@

화순전남대병원·전남암센터 의료봉사



화순전남대병원(원장 국훈)과 전남지역암센터(소장 정익주)는 최근 조기검진의 일환으로 고흥군 과역면 노일리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서광주세무서 장애인시설에 위문품 전달



서광주세무서(서장 오용현) 사령나눔봉사단은 최근 장애인 생활시설 '애일의 집'을 방문해 선물과 함께 위문품을 전달하고, 빙발 가꾸미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서광주세무서 제공〉

목포경찰 섬마을 환경정화 봉사



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는 농번기를 맞아 14일 신안군 암해면 대천리에서 양파수확과 마을 환경정화 활동 등 '농촌사랑 1시간 운동' 봉사활동을 펼쳤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한빛여성봉사단 내일 일일찻집

수익금은 소외층 급식차량 지원

사단법인 한빛여성봉사단(회장 심정희)은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순회 급식 봉사 차량 전수식 및 일일찻집' 행사를 갖는다.

봉사단의 회원 회비와 후원금 등을 모아 급식차량을 구매해 한 달 전부터 동구 청소년수련원과 소래동 삼래경로당에서 매주 토요일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일일찻집 행사 수익금은 차량 운영비로 사용할 방침이다.

심정희 한빛여성봉사단 회장은 "봉사단 가족은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깊은 향수가 담긴 음식을 찾아 대접하면서 소외계층 어르신들께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며 "일일찻집 행사에도 뜻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빛여성봉사단은 지역 내 여성 500여 명이 주축이 돼 지난 2007년 비영리 노인복지법인으로 설립된 봉사단체로 지난 5년간 노인들을 위해 경로위안잔치, 게이트볼 대회, 광복봉사, 머리염색 봉사, 홀몸노인김장해드리기, 쌀지원 등 659차례에 걸쳐 봉사활동을 벌였다.

문의 062-527-4249.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포기했던 두 발 되찾아… 여수 시민에 감사”

몽골체녀 철동씨 기적적인 훌로서기 성공

"꿈을 이뤄준 대한민국과 도와주신 모든 분들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걷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몽골 출신 간바르트 철동(여·25)씨가 여수 사람들의 도움으로 두 다리를 되찾았다.

18세 때 사고로 머리를 다쳐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온 철동씨는 지난해 11월 여수은현교회 선교팀의 도움으로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

입국 후 그녀는 김충석 여수시장의 후원으로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다시



모를 비롯한 가족 모두가 국적이이다. 여덟 살 무렵 자연스럽게 소리를 시작한 뒤 광주 예고와 이화여대를 다니는 내내 안숙선·조상현 명창을 사사하며 소리에 정진했다는 그는 "할머니에게 상 타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사명감을 갖고 국악과 판소리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준양가의 '옹종가' 대복을 눈물을 흘리면서 애절하게 뽑아내며 명창 반열에 오른 조씨가 소리에 빠져든 것은 습관과 같다. 순천 판소리의 대모로 일컬어지는 故 염금향 명창이 외할머니이며 부

없이 훌로서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

박기주 원장은 "두발로 걷고자 하는 그녀의 희망을 이뤄주고 싶은 온 병원 식구들이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었다"며 "몽골에 돌아가서도 꿈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철동씨는 "지난 7년 동안 두 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날만을 꿈꿔왔다"며 "대한민국이 많은 것을 베풀어 줬다"고 말했다.

다시 두발로 걷게 된 철동씨는 오는 8월 자신의 발로 고향땅을 밟는다. 타고 왔던 휠체어는 기적을 만들어준 사랑재활요양병원에 기증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자인표 삶의 소중함 담은 소설 '오늘예보' 출간

"인간 삶의 메뉴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살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자살은 결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세상을 끌까지 살아가는 것,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텔런트 차인표가 장편소설 '오늘예보'(해냄출판사)를 출간했다. 2009년 위안부를 소재로 밤 표한 첫 작품 '찰가요 언덕'에 이은 두 번째 소설이다.

차인표는 출간에 맞춰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잘가요 언덕"이 다른 사람

고 싶었다"고 소개했다. '오늘예보'는 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불행하게 살다가 삶의 막다른 골목까지 몰린 세 남자의 이야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코믹하게 그린 소설이다.

/연합뉴스



한빛여성봉사단 내일 일일찻집

수익금은 소외층 급식차량 지원

사단법인 한빛여성봉사단(회장 심정희)은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순회 급식 봉사 차량 전수식 및 일일찻집' 행사를 갖는다.

봉사단의 회원 회비와 후원금 등을 모아 급식차량을 구매해 한 달 전부터 동구 청소년수련원과 소래동 삼래경로당에서 매주 토요일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일일찻집 행사 수익금은 차량 운영비로 사용할 방침이다.

심정희 한빛여성봉사단 회장은 "봉사단 가족은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깊은 향수가 담긴 음식을 찾아 대접하면서 소외계층 어르신들께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며 "일일찻집 행사에도 뜻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빛여성봉사단은 지역 내 여성 500여 명이 주축이 돼 지난 2007년 비영리 노인복지법인으로 설립된 봉사단체로 지난 5년간 노인들을 위해 경로위안잔치, 게이트볼 대회, 광복봉사, 머리염색 봉사, 홀몸노인김장해드리기, 쌀지원 등 659차례에 걸쳐 봉사활동을 벌였다.

문의 062-527-4249.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주대사습 판소리 명창 장원에 조정희씨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진실한 소리라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일 전주시 한옥마을 경기전에서 열린 대사습놀이 본선에서 영예의 판소리 명창부 장원을 차지한 조정희(여·33)씨는 "대상을 받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더"면서 이같이 말했다.

준양가의 '옹종가' 대복을 눈물을 흘리면서 애절하게 뽑아내며 명창 반열에 오른 조씨가 소리에 빠져든 것은 습관과 같다. 순천 판소리의 대모로 일컬어지는 故 염금향 명창이 외할머니이며 부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음악교류,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학순 20명. 062-267-3700.

▲자비선원 명상 무료 지도=학생, 주부, 직장인,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 062-228-7701.

부음

▲전수복씨 별세 노재찬(화순중학교 교장)·장준(주)바텍 회장)·재

▲박희조씨 별세 형규·남규·연락처 062-231-8906.

▲정수복씨 부친상=발인 15일 (수)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윤오중씨 별세 종희·숙희·미숙·정희·희숙·현숙·연숙·부친상=발인 15일 (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육·규영·규숙씨 부친상=발인 15일 (수)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윤경희씨 모친상=발인 17일(금)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 02-3410-6914.

▲박길자씨 별세 정기출·기화씨 모친상=발인 17일(금) 송정장례식장 062-941-4400.